

## 제주 아홉고랑풀의 사례를 통해 본 약초 지식의 탄생\*

김두진\*\*

### <국문초록>

제주 한경면에는 단오 무렵 ‘아홉고랑풀’이라 하여 우렁선·녹이초·쑥·익모초·오갈피·삼지구엽·천문동·띠 뿌리·금은화(연꽃) 등의 약초를 채취하는 풍속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녹이초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삼지구엽초는 제주에 자생하지 않는다. 민간의 채취 시기도 일치하지 않아, 실제로 단오 무렵 채취되는 식물은 쑥, 익모초 정도에 불과했다.

연구자는 주민들의 제보와 전문가의 확인, 각종 문헌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식물의 분류학적 실체를 찾아 보고, 주민들이 약초에 대해 가진 생각이 하나의 전통으로 창조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아홉고랑풀 중 일부가 효능을 보이는 증상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서 관념적 범주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 환경의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 민간요법, 민간의료, 민족식물학, 민족전통약학, 식물, 아홉고랑풀, 약초, 의료인류학, 전통지식의 재구성, 제주도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551-A00015).

\*\*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강사(인류학 전공)

## I. 식물연구의 전제 조건

제주에는 매년 단오 무렵 ‘아홉고랑풀’이라 하여 아홉 가지의 약초를 채취하는 풍속이 있다고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 발간한 『제주도 세시풍속』(2001)은 제주도 내 총 12개 마을의 세시풍속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북제주군(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일대의 5월 단오 풍속으로 우령선·녹이초·쭈·익모초·오갈피·삼지구엽·천문동·띠 뿌리·금은화(연꽃)를 ‘아홉고랑풀’이라 하여 부인병 등에 약으로 쓴다는 것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 99). 약초에 관해 민족식물학적·의료인류학적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는 이 아홉 가지 식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들이며, 왜 ‘아홉고랑풀’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아홉 가지 식물들의 식물분류학적 위치는 어떠한지 실제 채취 시기가 단오 무렵인지, 또 어떤 부위를 어떤 증상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 그리고 아홉고랑풀의 약효를 정확히 밝혀냄으로써 역으로 제주도 지역의 일상적인 질병 상황에 대한 전통적 대응 방식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기존 역사학이나 민속학에서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약초로 이용되는 식물 9종의 분류학적 실체와 약으로서의 활용 등을 분명히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본 논문의 이해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식물 연구의 중요성이다. 식물은 건축 자재이자 연료, 의복과 종이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구를 만드는 중요한 자원이다. 뿐만 아니라 공예품의 재료이자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문학적 소재와 정치적 상징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인류의 식량원이자 건강을 지키는 약용 자원으로서 식물은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김두진, 2003 : 61). 그러한 까닭에 인류학은 그 초창기부터 식물과 문화의 상관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전개해 오고 있는데, 1897년 데이빗 P. 배로우스가 「남캘리포니아 카힐라 인디언의 민족식물학 The Ethnobotany of the Coahuilla

Indians of Southern California」이라는 제목으로 시카고대학교에서 미국 인류학계의 제3호 박사학위를 받았던 것이 좋은 예이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속학 · 인류학계에서는 식물을 포함한 자연 세계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서구 학계에서는 1세기가 넘게 식물학자와 인류학자가 중심이 되어 식물과 사회문화의 접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온 결과 지금은 초기의 실용적 목적의 자료 수집 단계에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내놓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 분야 연구를 위해서는 식물의 학명을 병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학제간 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해<sup>2)</sup> 국제 공통의 학명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민속분류법(folk taxonomy)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흔히 재질이 우수한 나무로만 알고 있는 춘양목은 학명이 아닌 소나무(*Pinus densiflora*)의 품종 중 하나인 금강소나무(*Pinus densiflora* for. *erecta*)를 가리키는 별칭으로서, 이같이 불리게 된 데에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 지역에서 채별한 소나무가 춘양(春陽)역에 집산(集散)하였던 사회적 배경이 있다(전영우, 1999 : 114-116 ; 김두진, 2003 : 71 재인용). 이처럼 종의 명확한 구명과 공통 규약으로서의 학명 표시는 오해를 막고 이 방면 연구의 개척과 세계 학계와의 교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언제까지 한국 문화 속의 식물들을 ‘a kind of pine tree’라는 식으로 번역 소개할 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sup>3)</su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보적이거나 식물의 학명을 표기하려는 노력

- 
- 1) 초창기 미국 대학에서 수여된 인류학 박사학위 논문 목록은 Bernstein(2002 : 560)을 참고할 것.
  - 2) 덧붙여, 문화권이 극히 추상적 · 관념적이며 ‘인문학적’ 사고에 국한되는 것도 한 원 인일 것이다. 특히 한국의 인류학계는 물질문화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데, 일상의 조건이 되는 물질들에 대해 자연과학계가 거두고 있는 성과를 담은 연구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3) 그러나 종의 구명과 라틴어 학명 표시는 관련 지식이 없는 인문 · 사회과학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 보다 더 큰 걸림돌은 현지 주민들의 민속분류와 근대적 식물 분류의 불일치이다. 지방에서 실제 쓰이는 향명(鄉名)과 한의학에서 쓰이는 본초명(本草名), 그리고 국문 학명과 각종 이명(異名)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것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연구 대상이 되는 식물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과 범주의 차이, 즉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과 함께 식물에 대한 분류학적 이해가 문화 연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 학계에 아직 생소한 인류학적 식물 연구와 민족식물학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어서 아홉고랑풀의 분류학적 실체를 밝힌 뒤 조사 대상 지역에서 전승되는 약초 관련 지식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겠다. 이를 통해 약초가 식물학적 실체인 한편으로 문화적 구성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히겠다. 또 아홉고랑풀의 분석을 통해 민속질환(folk illness)에 대한 대응 방식을 분석해 보고, 마지막 장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적 고통과 대응 방식을 다루도록 하겠다. 이러한 과정은 식물 연구와 의료민속 연구의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시론적 성격을 갖는다.

## II. 인류학과 민족식물학

앞서 소개한 배로우스의 논문 제목에 쓰인 ‘ethnobotany(민족식물학)’라는 말은 실은 미국의 식물학자인 존 하쉬버거가 1896년 『식물학회보 *Botanical Gazette*』에 기고한 논문 『The purpose of ethnobotany』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김현·송미장, 2008 : 2). 이 논문에서 하쉬버거는 민족식물학을 “의학적 사용을 포함하여, 인간과 식물이 환경 속에서 맺는 실용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로 규정하고 있다(Harshberger, 1896 : 146). 그들이 각각 민족식물학이라는 개념을 논문 제목으로 들고 나온 것은 당시 세계에 대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에서 식물의 연구 가치와 효용 가능성에 주목하던 미국 학계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4)</sup> 비록 민족식물학이라는 용어는 1896년에야 비로소 생겨났지만 식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훨씬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의 디오코

4) 예컨대 식물학자 랜돌프 M. 길모어가 1919년에 간행된 『미국민족학사무국 연례 보고서 *Annual report of the U.S. Bureau of Ethnology*』에 기고한 『Uses of Plants by the Indians of the Missouri River Region』라는 논문명에서 보듯이 비서구 사회의 식물에 대한 관심은 애초부터 실용적 목적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리데스(Dioscorides)가 지중해 지역 600여 종의 식물들에 관하여 기술한 『약물지 *De Materia Medica*』를 남겼고, 중국에서는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을 비롯한 많은 문헌들이 전해오기 때문이다.<sup>5)</sup>

1910년대 중반부터 차차 늘기 시작한 문화와 식물의 접점에 대한 연구들은 1920년대로 들어오면서 초창기 민족학 혹은 박물관학자들인 W. W. 로빈스와 H. H. 스미스, R. M. 길모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이들은 미국 원주민들의 식물 이용에 관한 일련의 조사 보고들을 민족학 회보나 박물관 회보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족학(인류학)에서의 식물 연구는 비서구 사회, 특히 미국 원주민들의 문화와 식물 활용에 대한 자료 수집 수준의 초보적인 연구에 불과했다. 1938년에는 환각 성분이 있는 선인장인 피요테를 연구한 W. 라 바르(La Barre)의 『*The peyote cult*』가 출간되어 이후 환각식물 연구에 이정표를 세운다.

1955년에는 인류학자 해롤드 C. 콘클린(Conklin)이 예일대 박사학위 논문인 『하누노우 문화와 식물세계의 관계 *The relation of Hanunóo culture to the plant world*』를 발표하였는데, 그가 이 논문에서 필리핀 하누노우족의 식물 분류 방식을 언어학적 어휘소 분석을 통해 보여주면서 방법론에 있어 큰 전환점을 마련했고 이후 인지인류학 분야가 탄생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1960년대, 중앙아메리카의 첼탈(Tzeltal)족 사회를 연구한 브렌트 벌린(Berlin)은 후에 벌린시스템이라고 불리게 되는 5~6등급의 위계적 민속분류체계가 인류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이들과 다른 각도에서 레비스트로스가 원주민들의 동식물 분류 방식을 그의 구조주의적 신화 분석에 활용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 하버드대의 리차드 E. 숄츠(Shultes), 뉴욕주립대의 피터 T. 퍼스트(Furst) 등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과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식물, 특히 환각식물의 활용에 대한 연구들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1992년 국내에도 번역 소개된 퍼스트의 『환각제와 문화 *Hallucinogens*

5) 민족식물학의 간략한 약사는 Choudhary, K. 외(2008 : 39)를 볼 것.

and Culture』(1976)는 식물의 종을 구명(究明)하고 해당 식물의 성분이 문화에 미친 영향을 밝힘으로써 종교와 상징, 의례, 인구집단의 이동 등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었다. 1980년 미국에서는 민족생물학회(Society of ethnobiology)가 발족되면서 저널을 간행되기 시작했고, 1988년에는 처음으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1990년대에는 민족식물학 개론서들이 출간되었고, 국제민족생물학회(ISE)가 출범하게 된다.

최근 10여 년간 인류학적 훈련을 받은 식물학자들의 왕성한 활동이 이어지며 민족식물학은 독자적인 분과 학문으로 점차 빠르게 성장해 오고 있지만, 의외로 인류학계 내에서는 그다지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 인지인류학이 쇠퇴하면서 소수의 인류학자들만이 민족식물학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보다 더 적은 수의 의료인류학자들이 민족의학(ethnomedicine) 및 약초 분야를 연구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식물에 관한 민속학·인류학 연구는 손에 꼽을 만하여 언어인류학 분야에서 별린시스템을 활용한 왕한석의 제주 조 명칭에 관한 연구, 적미(赤米)에 관한 천경수의 연구, 나물 및 채약 관련 민속에 관한 박경용의 연구들이 있을 뿐이다. 인류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식물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접근은 매우 드물어서 대마나 담배 등등 특정 작물에 대한 교양서나 전파론적 관점에서 식물의 문명사를 다룬 저서들이 있으나, 그나마 민속분류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종명 표기를 병기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만하다. 근년에 김현과 송미장이 『민족전통식물학』(2008)이라는 제목으로 이 분야의 개론서를 펴냈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식물 소재 교양서의 출간이 점차 늘고 있지만 외국 학계의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는 데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Ⅲ. 조사지 개관 및 연구 방법론

제주시 한경면은 서쪽으로는 바다에, 북쪽으로 한림읍, 남쪽으로 대정

읍, 동쪽으로 안덕면에 접해 있으며, 15개 리 5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현재 등록된 인구는 8,232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이 4,121명, 여성은 4,111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장 및 교육 등등의 이유로 실제 거주 인구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연구자가 조사한 곳은 고산1리와 낙천리 일대로 고산1리에는 680세대 1,775명(남 858, 여 917)이 7개의 자연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낙천리는 81세대 200명(남 103, 여 97)이 2개의 자연마을에 살고 있다. 낙천리의 경우 29세 미만이 21.5%(43명), 30세부터 64세가 52%(104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6.5%(53명)인데, 이러한 비율은 고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경면 사무소 옆에는 신창초등학교가 있는데, 원래는 나뉘어 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1998년 통합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인구는 빠르게 줄고 대신 노인 인구가 늘고 있다.<sup>6)</sup>

고산1리는 해안에 위치하여 도내 서일주도로가 지나가며 제주와 서귀포를 잇는 길목으로 국내 대도시에서도 보기 드문 육거리가 있을 정도로 마을이 제법 커서 인구가 조금씩 늘고 경제 사정이나 거리의 활기가 느껴진다. 반면 고산리에서 자동차로 15분 남짓 거리의 낙천리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 고산리에 의해 바다와 막혀 있고, 중산간지대에 위치하여 교통도 불편하며, 1980년대 이후 인구도 빠르게 줄며 마을이 쇠락해 가고 있다. 고산1리가 리 단위에서 두터운 향토지를 만들어 낼 정도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경로잔치나 마을회관 공사 등 대소사가 끊이지 않는 것에 비해, 낙천리는 마을의 경제 회복을 위해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였으나 이 역시 고즈넉한 마을 풍경을 바꿔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한경면 일대는 연 평균 강수량 1,280mm, 연 평균 기온 15.7°C로 비가 많이 오고 온화한 편이다. 고산리의 경우 노꼬물(수월봉)과 당산오름 등의 낮은 산이 있으며 표고는 대략 15m 정도 된다. 낙천리의 경우 조수악(새신오름), 저지악 등으로 불리는 작은 산들이 외곽에 둘러져 있으며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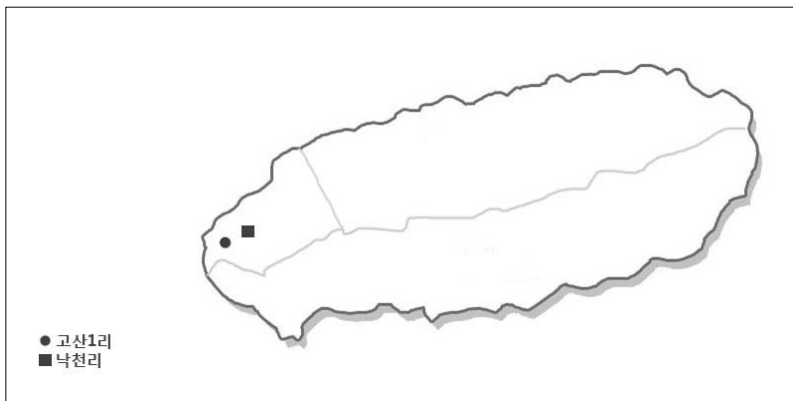
6) 인구 자료는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http://www.jejusi.go.kr)) 및 한경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받은 파일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고는 70m 정도이다. 두 지역 모두 평지 혹은 그에 진배없는 구릉으로 이루어져 밭농사가 많이 행해져 오는데 주요 작물로는 양파·감자·무·마늘·오이 등의 채소류와 쌀보리와 콩 등의 잡곡류, 그리고 꿀과 한라봉 등이다(한경면역사문화지편찬위원회, 2007 : 70-88).

두 지역에서 제주 시내까지는 버스로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가 걸리는데, 고산리 주민들은 예로부터 한림읍과 대정읍을 모두 오갔으나 낙천리는 주로 한림읍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두 지역의 주민들은 과거에 약초를 캐서 장에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약초를 사야 할 경우에는 주로 한림읍에 나가야 했다고 한다. 아래는 두 지역의 의료시설 현황으로 낙천리의 경우 약국에 가려면 약 7km 떨어진 신창리까지 가야 하며, 보건소는 고산리와 낙천리 모두 인접 지역에 의존해야 한다.

<표 1>

의료시설	고산리	낙천리
약국	3곳	없음(신창리)
병원	3곳(치과 1곳 포함)	없음
한의원	1곳	없음
보건소	없음 (용수리, 신도리)	없음(조수리, 청수리)





현지조사는 모두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2009년 9월 9일부터 14일 사이에는 행정기관과 제주문화원, 제주대 도서관 등에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찾았고 현지주민들과 오랫동안 약초 관련 일을 하는 주요 제보자들을 추천받았다. 2009년 10월 15일부터 22일 사이에는 낙천리 일대에서 주민들과, 2010년 3월 16일부터 24일 사이에는 고산1리에서 주민들과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주요 제보자를 선별하여 인류학적 비공식 인터뷰와 참여관찰법을 사용했다. 식물의 동정은 식물도감 및 인터넷의 관련 DB를 참고하였으나, 식물학을 전공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의 전통의료 종사자이자 식물학자인 김한주 씨에게 감수를 받았다.

#### IV. 아홉고랑풀의 분류학적 실체

현지조사에 앞서 식물도감 등의 문헌 조사를 통해 예상한 위 약초들의 분류학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식물의 분류는 이론과 방법론에 따라 이견이 있고, 또 학명은 중복 명명 및 학명 변경 등에 따라 혼란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창복의 『大韓植物圖鑑』 6판과 안덕균의 『原色韓國本草圖鑑』 4판에 소개된 학명 및 분초명, 그리고 기술 내용(이용 부위 등등)을 기준으로 삼겠다. 아울러 각 학명에서 명명자 표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한다.

먼저 ‘우령선’은 한방 약재로 쓰이는 위령선(威靈仙)으로 예상했는데, 내륙에서는 대체로 ‘으아리’라고 불리는 미나리아재비과 으아리속(屬)에 속한 식물들 가운데 주로 참으아리(*Clematis terniflora*)를 중심으로 위령선(*Clematis florida*), 큰꽃으아리(*Clematis patens*), 으아리(*Clematis mandshurica*) 등과 그 변종 및 품종<sup>7)</sup> 등이 약재로 가공되어 위령선으로 불린다. ‘쑥’은 국화과 쑥속(*Artemisia spp.*)에 속한 식물로서 한반도에는

7) 예컨대 학명에 *Clematis mandshurica* var. *koreana*(큰위령선)과 같이 ‘var.’가 있는 것은 변종임을, *Clematis mandshurica* for. *lancifolia*(긴잎으아리)처럼 ‘for.’가 들어있는 것은 품종임을 뜻한다.

40여 종 남짓 자생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분포지가 넓지 않거나 흔히 볼 수 없는 종들을 제외하면 제주에는 10종 안팎이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현지인들이 말하는 ‘익모초’는 꿀풀과 익모초속의 익모초(益母草, *Leonurus sibiricus*)일 것이 확실했다. 익모초속 식물에는 한국 자생종으로 송장풀과 익모초가 있으나, 송장풀이 크기와 생김새가 익모초와 달라 현지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킬 것 같지 않은 데다 각종 도감류의 익모초 항목에도 한 종만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오갈피’는 한방 약재인 오가피(五加皮)에 쓰이는 두릅나무과 오갈피나무속(*Eleutherococcus spp.* 혹은 *Acanthopanax spp.*) 중에 국내에 서식하는 16종의 일부로, ‘삼지구엽’은 흔히 음양곽(淫羊藿)으로 널리 알려진 매자나무과 삼지구엽초속의 삼지구엽초(*Epimedium koreanum*)로 생각되었다. 또 ‘천문동’은 백합과 아스파라거스속 식물 3종 중 천문동(*Asparagus cochinchinensis*)일 가능성이 높지만 경우에 따라 천문동으로 대응되는 비짜루(*Asparagus schoberioided*)일 수도 있어 보였다. ‘띠 뿌리’는 벼과 식물인 띠(*Imperata cylindrica*)의 뿌리와 뿌리줄기를 말린 약재인 모근(茅根)으로 짐작되었다.

그러나 녹이초와 금은화는 도감만으로는 추정이 어려웠다. 전자는 이름만 보아서는 한약재로 쓰이는 녹리(鹿梨)와 비슷하나 녹리는 장미과의 쿵배나무(*Pyrus calleryana* var. *fauriei*) 열매이며, 또 미나리아재비과의 노루귀(*Hepatica asiatica*)를 비롯한 동속 3종 식물을 한자로 표현(鹿+耳)한 것일 수 있었으나 다른 한자들의 조합 혹은 발음이 와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또 금은화는 문화재연구소의 『제주도 세시풍속』 본문에는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의 5월 세시풍속을 소개하는 62쪽에서는 인동고장으로,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의 5월 세시풍속을 소개하는 99쪽에서는 연꽃으로 되어있다. 전자의 경우 금은화(金銀花)로 불리는 인동(忍冬)과의 인동덩굴(*Lonicera japonica*) 혹은 붉은인동(*Lonicera sempervirens*)의 꽃인지, 아니면 금은인동(金銀忍冬)이라 불리는 인동과의 괴불나무(*Lonicera maackii*)의 꽃인지 알 수 없다. 또 후자의 경우 금은화를 연꽃이라고 소개하였으니 민간에서 흔히 금은련화로 불리는 어리연꽃(*Nymphoides indica*)일 수도 있다. 다만 아홉고랑풀이 단오 무렵 채취한다고 하였으며

로 금은화는 꽃이 그 무렵에 피는 인동과 식물들인 듯하며, 꽃이 8월경에 피는 금은련화는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약용 부위가 꽃이 아니라면, 금은련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외부와 격리된 섬이고 환경면과 대정읍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음을 감안할 때 『제주도 세시풍속』의 62쪽과 99쪽에 실린 금은화는 같은 식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각각 인동고장과 연꽃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놓은 까닭에 문헌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김두진, 2003 : 69-71).

그러나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현지 주민들의 제보와 제주 시내에서 40여 년간 한약방을 운영해 온 식물학 박사 김한주 씨의 확인, 현지에서의 간단한 동정 과정과 서울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현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하여 얻게 된 결론은 위의 예상과는 달랐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령선은 으아리류의 뿌리를 가공한 약재명 위령선이 맞는데 정확히는 으아리(*Clematis mandshurica*)이다. 쑥속 식물의 포괄적인 생활형칭(生活形稱, life form)인 ‘쑥’은 제주에서 총14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환경면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쑥(*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이었고, 띠뿌리·익모초·천문동은 예상과 같았다. 오갈피는 탐라오갈피라고도 불리는, 제주를 중심으로 한 한국 특산종인 섬오갈피(*Acanthopanax koreanum*)이고, 금은화는 흔히 인동꽃, 인동고장 등으로 불리는 인동(*Lonicera japonica*)을 가리킨다. 녹이초는 각종 식물도감과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찾을 수 없었으며 김한주 씨도 한약재의 이명(異名)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고 했다. 삼지구엽초는 제주도에서는 기후가 맞지 않아 자생하지도 않고 재배되지도 않는다. 제주 민간에서는 예부터 삼지구엽초 대응으로 꿩의다리아재비(*Caulophyllum robustum*), 쯤꿩의다리(*Thalictrum minus* var. *hypoleucum*), 개승마(*Cimicifuga acerina*)<sup>8)</sup> 등이 사용된다(김한주, 2004 : 29).

8) 이들 식물의 약재명은 순서대로 홍모칠(紅毛七, 개음양곽), 동아당송초(東亞唐松草, 혹은 연과초[煙鍋草]), 그리고 삼면도(三面刀)이다.

&lt;표 2&gt;

학명	채취 시기	채취 부위
으아리 <i>Clematis mandshurica</i>	초봄·늦가을	뿌리
쑥 <i>Artemisia princeps</i> var. <i>orientalis</i>	초여름 (단오 무렵)	잎
익모초 <i>Leonurus sibiricus</i>	여름	지상부 전체
섬오갈피 <i>Acanthopanax koreanum</i>	늦가을	뿌리·줄기의 겉질
천문동 <i>Asparagus cochinchinensis</i>	겨울	덩이뿌리
띠 <i>Imperata cylindrica</i>	4~7월 (개화 전)	뿌리줄기
인동 <i>Lonicera japonica</i>	장마 무렵	꽃

즉, 아홉고랑풀 중 으아리(우령선)·쑥·익모초·천문동·띠(띠뿌리)·섬오갈피(오갈피)·금은화(인동꽃) 등 7종이 한경면 일대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비록 이들 식물이 한경면 일대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민간의 구급단방에서 쓰기 위해 주민들이 이들 식물을 실제로 단오 무렵에 채취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고산리의 고인선 씨(가명, 여, 1920년생)와 변을순 씨(가명, 여, 1923년생)는 평생 고산리에서 살아온 사람들로서 말마작, 생개, 너삼뿌리, 방풍뿌리, 왕소왕이 뿌리, 오갈피, 띠뿌리 등 여러 풀들을 약용한 경험이 있으나, ‘아홉고랑풀’이라는 범주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고 하였다. 다만,

9) 참고로 한반도 곳곳에는 단오 무렵에 여러 병에 좋다는 식물들을 채취하는 민속이 전승되어 오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단오의 상징, 단오문화권의 생태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오갈피’는 썩이나 잎도 좋지만 뿌리가 특히 신경통에 좋아서 단오 때와 추석에 지난 뒤에 주로 채취했지만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띠뿌리’는 한여름 이전에 채취했다고 한다. 고산리에 살다가 낙천리로 시집와 살고 있는 김갑선 씨(가명, 여, 1932년생)에 따르면 으아리는 초봄과 늦가을, 썩은 단오 무렵, 익모초는 여름, 천문동은 겨울, 인동은 여름 장마 무렵에 각각 채취하였다고 한다. 그녀의 경우에는 ‘아홉고랑풀’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풀들인지는 자세히 몰랐다. 단오 무렵에 그런 풀들을 뜯어 말리면 백병(百病)에 좋다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었으나 그저 “옛날 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정도라고 하였다. 젊었을 때 3~4년 물질하러 일본에 갔던 때를 빼고 평생을 고산리와 낙천리 일대에서 살아온 임영춘 씨(가명, 여, 1916년생) 역시 익모초와 썩이 여자한테 좋아 단오 때 많이들 캐러 다녔다는 정도로만 기억했다.

이밖에도 여러 주민들의 제보와 김한주 씨의 확인, 그리고 제주지역 문헌들을 종합하면 으아리는 초봄과 늦가을, 썩은 단오 무렵, 익모초는 단오부터 여름 내내, 섬오갈피는 단오와 추석 무렵, 천문동은 겨울, 띠는 초여름, 인동은 여름 장마 무렵에 주로 채취했다고 한다. 결국 단오 무렵에 채취하여 온다는 ‘아홉고랑풀’은 실제로는 썩·익모초·섬오갈피·띠 정도가 된다. 여기서 섬오갈피는 제주 특산종이기는 하나 야생에서 자생하는 개체가 매우 희귀했던 것을 감안하면<sup>10)</sup>, 결국 아홉고랑풀은 민간에서 널리 쓰이는 썩과 익모초를 중심으로 띠를 아울러 제주 서부 사람들에게 친근한 약초들이 상징적으로 범주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김한주 씨도 역시 채취 시기가 다른 점을 들어 아홉고랑풀이 썩과 익모초를 중심으로 한 관념으로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단오에 아홉고랑풀을 채취하는 풍속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과 식물분류학적 접근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아홉고랑풀은 9종의 식물 중 일부에 대한 경

10) 제보자들의 제보 내용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조사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남제주군·최남단청정환경21실천협의회(2003 : 252)를 참고할 것. 오늘날 섬오갈피는 특용작물로 제주 곳곳에서 재배된다.

힘과 지식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관념적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형성된 관념이 지식인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지역 주민 차원의 지식 전승 양상을 살펴보겠다.

## V. 약초 지식의 전승과 재구성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아홉고랑풀 풍속은 현지에서 평생을 살아온 고향의 주민들조차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 몇몇 주민이 어릴 적에 단오 때 아홉 가지 약초를 뜯어 말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홉고랑풀 풍속은 전승의 폭이 넓지도 않고 단절된 지도 오래된 듯하다. 『제주도 세시풍속』은 모두 8개 지역 주민으로부터 단오 무렵의 약초 채취 풍속을 보고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쑥을 중심으로 익모초와 그밖에 다양한 약초들을 채취하는(했던) 풍속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경면 이외 지역에서 아홉고랑풀과 관련된 내용은 남제주군(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의 세시를 설명한 부분에서 ‘아홉 가지 풀’이라는 구절이 보이는 정도인데, 어떤 풀들인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제주도 세시풍속』의 한경면 고산리 편의 아홉고랑풀 부분(99쪽)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단오에 약초를 채취하여 말린다. 쑥·익모초·우렁선·녹이초·오갈피·삼지구엽·천문동·띠 뿌리·금은화(연꽃)를 ‘아홉고랑풀’이라 하는데 …….

그런데, 이 구절은 실은 제주 문화 지킴이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오고 있는 진성기 씨가 1969년 펴낸 『南國의 歲時風俗』의 초판(1969)<sup>11)</sup> 230

11) 이 책은 현재 진성기 씨의 개인 박물관인 제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육필 원고를 등사한 한정판이었으나 후에 『濟州道民俗 - 歲時風俗』으로 제목을 바꿔 달고 재판을 내면서 아홉고랑풀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한다.

쪽에 실려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아홉고랑풀”이란 아홉 가지의 풀을 뜻한다. 아홉 가지의 풀은 ① 쑥, ② 익모초, ③ 우령선, ④ 녹이초, ⑤ 오갈피, ⑥ 삼지구엽, ⑦ 천문동, ⑧ 띠뽕리, ⑨ 금은화(이는 연꽃으로서 해열제가 된다 함) 등을 말함이다. (하략)

아홉 가지 풀의 순서와 부연 설명이 똑같이 배열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제주도 세시풍속』의 해당 부분은 진성기 씨의 책을 어떤 식으로든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진성기 씨에게 확인해 보니 그는 1936년 고산리에서 태어나 16세 무렵 지금의 제주 시내로 이주했다고 하는데, 어릴 적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것을 기억하여 책에 썼으며 위의 내용 이상의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풍속은 1910년대 후반~1930년대 초반에 출생한 고산리와 낙천리의 노인들이 아홉고랑풀에 대해 거의 모르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20세기 초반에는 이미 전승이 중단되었거나, 혹은 그 당시 살았던 일부의 주민들에 의해 해당 식물들이 임의로, 혹은 맥락적으로 범주화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南國의 歲時風俗』과 『제주도 세시풍속』의 해당 구절은 아무런 검증 없이 『濟州 高山郷土誌』(2000 : 1025), 이상희(2004 : 214)와 국립민속박물관(2005 : 165) 등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연구자들과 일반 독자들은 제주도에 삼지구엽초가 자라거나, 아홉 가지 풀 모두 단오 무렵에 채취해야 좋은 것으로, 더 나아가 제주도 전체에서 폭넓게 전승되던 민속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민간의 기억과 경험이 지식인들에 의해 공인된 지식으로 만들어지고 나아가 전통성(혹은 정통성)을 확보하게 됨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지식은 연구자가 일정한 방법에 의해 검증하는 객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맥락에 의해 재구성되고 선택되는 주관적 기억이기도 하다. 이는 개인의 우연적, 유동적인 몸의 경험과 기억의 세계가 주관적 해석을 거쳐 집단적 지식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엘리자베스 수 역시 역동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여러 분야들 간의 경합과 협상에 따라 식물에

대한 지식이 만들어지며 인간은 식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문화적 형태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Hsu, 2010 : 2). 결국 약초와 그에 관한 지식은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며, 현장의 제보 내용만으로 실체를 찾는 작업은 약초에 관한 온전한 이해에 한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sup>12)</sup>

이는 부정확한 사실이 ‘전통문화’로 둔갑된다는 비판이 아니다. 그보다는 개인들의 약초에 관한 지식이 단순히 어떤 증세에 어떤 약초를 쓰라는 식의 단방(單方)으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과 주변 자연환경 등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범주화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학계의 지식과 담론의 형성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의 지식 전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부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채취 시기 등이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지만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여러 식물들이 하나의 범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현지 주민들의 지식이 재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아홉’이라는 수가 갖는 상징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홉’의 의미는 재구성된 조상의 경험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지식에 완결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3)</sup> 거의 대부분의 촌로들(대

12) 마찬가지로 근대적 생활양식과 서구식 질병 개념 및 진단 기술이 보급되면서 그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존재하지도 않던 질환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예단 와터스(2011)에 따르면 홍콩에 거식증 환자가 나타난 것은 서구의 거식증이 홍콩사회에 알려지면서부터였다고 한다. 흔히 의학적 실체라고 생각하기 쉬운 질병조차도 문화 속에서도 그것을 규정하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해당 질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치료법이나 치료약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는 약초 관련 지식들도 ‘불변하는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증상 및 질병과 연동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적 구성물로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13) 제주 무가인 ‘초감제’, ‘세경본풀이’와 ‘웨네깃또(괴너깃또)’ 설화 등에서 ‘아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숫자이며, 최근 조성된 환경면 낙천리의 테마마을인 ‘아홉곳마을’ 역시 전해 오는 마을 유래담에 아홉 연못이 등장하는 등 제주 전통문화에서 아홉은 종종 중요한 상징으로 쓰인다. 시인 서정주는 ‘門열어라 鄭道俞’라는 시에서 “아홉밤 아홉날을 빌고 빌어도 덧없이 스러지는 푸른 숲결이 저곳으로 묻지르면 도라 오리아”라고 읊었는데, 이 구절의 이미지가 아홉고랑풀의 ‘아홉’을 연상케 한다. 한편, 주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에 관해서는 조경만과 김하송의 보고가 있다. 전라남도 완도군 조약도 주민들은 “129종의 약초”가 자란다는 말을 통해 조약도의 약용 식물 자원이 풍부함을 자부하는데(조경만·김하송, 1994 : 194-195), 실제 여부를 떠나 섬 주민들의 관습화한 언설을 눈치챌 수 있다. 한편 인류학자 강신표 인제대 명예



개 여성)이 아홉고랑풀의 썩이나 익모초를 잡풀 내지 독초와 구별하고, 약으로 활용하는 법을 “어릴 적 어른들로부터 배워서 아플 때 써 보니까 낫더라”는 식으로 기억하는 것은 기억력이 흐려졌다기 보다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전해 주는 지식을 스스로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지식으로 만들었고 상황에 따라 맥락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 약초 채취 장소를 “단오 때쯤 마을 부근으로 일하러 가다 보면 언덕이나 들뜰에 인모초(익모초)나 새(띠)가 많았지”라며 딱히 특정하지는 못하는 것은 공간을 용도나 산물, 혹은 크기나 가격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시기나 일상적 활동과 연결해서 사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 채약인들의 채약 과정이 특정 서식 조건을 고려하여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원과 소망, 경건성이 수반되는 일종의 ‘순례자적’ 성격이 있다는 박경용(2009 : 47)의 지적과는 정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의 약초 지식은 집단적인 미분화적 사고에 기초해 있다.

한편 약초 지식의 전승에 있어 눈여겨 볼 것은 성(性)과의 관련성이다. 대개의 남성 노인들은 약초에 대해 물어보면 간단한 상식적인 답변과 함께 다른 남성 노인들을 추천하면서 그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말을 얼버무렸지만, 여성 노인들은 대체로 각종 증상과 일곱 가지 약초들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약초의 채취와 건조, 그리고 약 달이기 등의 일에서 남성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는 노인과 아이들을 간호하고 한 가정의 음식 등을 여성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했던 것과 관련된다. 체보자들에게 그러한 지식을 어디서 얻었는지 물으니 부모와 시부모, 삼촌과 마을의 (약을) 잘 아는 노인, 친구 등을 거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음식·약초 등을 다뤄 본 경험과 지식을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끊임없이 교환했던 것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임신과 육아의 주체여서 남녀간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조심스러운 몸가짐을 가져야 했었다는 사실과 연결시켜 보면, 남녀 수명

교수는 구곡원림(九曲園林)을 예찬하던 문화가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에서 유래하여 조선에 유행했던 것을 상기하며 무이의 아홉 골짜기를 선경에 비유하던 생각이 민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하겠다.

## VI. 민속질환의 인식과 아홉고랑풀의 활용 경험

아홉고랑풀 중 실체가 확인된 일곱 가지 식물의 효능에 대한 인식과 활용 경험은 표 3과 같다. 각종 약초 관련 서적을 보면 하나의 약초마다 다양한 증상에 활용이 된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현지 주민들은 한두 가지 증상에 한 가지 약초를 집중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보자들이 말한 증상들은 다양했으나 대략 정리해 보면, 여성 관련 민속질환들과 지혈, 근골 통증, 피부 질환, 해열, 가래, 기침, 대소변 배설 등이다. 심각한 전염병이나 중증의 질환들이 아닌, 그러나 일상 속에서 흔히 겪게 되는 소소한 증상이나 부상들로서 대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증상들임을 알 수 있다.

<표 3>

학명	약초 효능에 대한 인식	활용 경험
으아리	허리나 뼈가 아플 때, 생선 가시 뺄 때	말린 뿌리를 손톱 만큼 떼어 달인 후 복용
쑥	배가 아프거나 토할 때, 지혈 (특히 자궁출혈), 생리불순, 피부 부병	복용, 훈증, 목욕 등
익모초	산후 지혈 및 기타 부인과 질병, 피부 가려운 데, 종기, 습진, 월경 없을 때	말린 익모초 한 뿌리를 물 한 바가지 넣어 달여 먹는데 가려움증에 좋았다
섬오갈피	다리에 힘이 없거나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고, 몸에 기운이 없을 때	제보 내용 불확실하여 생략

천문동	가래 끓거나 입에서 피가 나올 때, 마른 기침을 할 때	말린 뿌리를 가루를 내어 꿀물에 타서 5일 정도 마시니 기침이 나았다.
띠	피를 멎게 하거나 열을 내릴 때	제보자 중 경험자 없음
인동	열을 내릴 때, 피부가 가려울 때	꽃을 그늘에서 말린 다음 차로 만들어 마셨다.

김갑선 씨의 경우 위의 아홉고랑폴 중 실제로 자신이 단오 무렵 채취하거나 복용한 것은 쑥이 유일했고 그나마 30여 년 전의 일로 기억한다. 폐경기가 지날 무렵이 되면서는 쑥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술하에 아들 형제만 있었던 데다, 197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약국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들어서기 시작한 덕분에 빠른 약효를 보이는 양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질병의 인식과 분류는 원인보다는 증상을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현대 의학의 질병 개념이나 병인론(病因論) 혹은 증상의 분류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 크게는 두 가지의 병인론이 전근대적 의료실천의 영역에서 존재해 오는데, 인격적 존재가 몸 안에 들어와 병이 생긴다는 관념과 몸 안의 평형이 깨져서 병이 생긴다는 관념이 그것이다(포스터·앤더슨, 1994 : 82). 예를 들면 마마귀신이 들어와 천연두에 걸렸거나 이불을 덮지 않고 자서 배탈이 났다는 설명 방식이 그런 것들이다. 이러한 병인론은 서구중심적인 이분법에 기초하여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Hsu, 2010 : 11-12). 서구적 질병 분류 개념과 병인론에 몰입하는 경향은 개개인의 생애사에서 펼쳐지는 사회적 관계를 간과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둘째 낳고 알술아서(회음 주변이 헐어서) 고생 했지. 그래도 내가 친정에서는 별로 고생을 안 했는데, 둘째 낳고부터 병을 달고 살어. 그때는 병원이 있나, 약국이 있나, 그저 어른들이 쑥을 피워놓고 요강 위에 앉아 있으라고 하길래 친정에서 말려둔 쑥을 구해다가 술에 넣고 삶아서 알손 테를 그 위

에 대고 한 열흘 앓았더니 아픈 것도 덜해지고, 살도 아물었어. 띠를 써도 좋다는데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겨울인데 밖에서 찬물로 빨래도 하고 아픈 시부모에 시동생들, 온갖 일 다했더니 겨울만 되면 몸이 아파. 그래서 몸이 쭈서거나 할 때는 오갈피가 좋다는데, 구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한림에 가서 ‘아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우령선이 좋다 해서 그걸 사다가 달여 먹었어요(연구자 재구성)

변을순 씨는 지금도 작은 스쿠터를 혼자 타고 다닐 정도의 건강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허리와 팔다리의 관절염과 근육통으로 젊을 적부터 고생해 왔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은 사건으로 둘째의 출산을 꼽고 있었다. 자신에게 나타난 여러 증상들을 해산을 충분히 못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연결시키는 것인데, 그 해결 방법을 찾다가 주변의 추천을 통해 쑤이나 오갈피, 우령선(으아리) 등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질병 원인은 전통적인 여성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의무에서 비롯된 관계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그녀에게 약을 추천한 사람들도 친밀한 관계를 가진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었다.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이나 마을의 친지들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1차적인 관계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담은 생생한 만큼 믿음이 간다. 생활 패턴이 비슷한 상황에서 생기는 일상적인 소소한 병증이나 부상 등은 대개 고만고만한 정도이기에 멀리 떨어진 의료시설의 공적 권위 보다는 사적인 신뢰 관계를 택하는 것이다.

&lt;표 4&gt;

제보자	성별 / 생년	거주지
고인선 (가명)	여 / 1920년생	고산1리(고산리 출생)
변을순 (가명)	여 / 1923년생	고산1리(고산리 출생)
김갑선 (가명)	여 / 1932년생	낙천리(고산리 출생)
임영춘 (가명)	여 / 1916년생	낙천리(고산리 출생)

전근대를 살아온 노인들은 몸의 아픔을 표현할 때 오늘날처럼 병명으로 말하지 않고 “열이 있을 때”, 혹은 “피부가 가려운 데”라는 식으로 말한다. 병명이나 증상을 특정 용어로 지칭하지 못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의학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몸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은 근대 생의학(biomedicine)이 정상적인 몸을 상정하고 병에 걸린 몸은 비정상적으로 보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열이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그런 것이며, 그것이 ‘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몸이란 원래 유동적이므로 증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대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변화할 수 없다면 그저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에 만족하고 대개는 그 상황을 감내해 낸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픈 상태가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폐암이나 당뇨의 예에서 보듯이 많은 병은 몸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무엇이 건강한/정상적인 몸인지에 대한 관념과 병의 원인 등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본다면 그에 따라 병의 분류나 치료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즉, 몸의 치료보다 사회관계와 환경의 변화가 현재의 의학적 치료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구 의학이 세계적으로 패권을 장악하면서 고유한 문화적 전통 안에서 존재하던 질병관과 약초 지식을 포함한 치료방식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노인들의 제보를 종합해 보면, 어릴 적에도 몸이 아프면 ‘병원’이 있던 한림읍(당시 구우면)으로 나갔다고 한다. 1917년 제주에 해안일주도로가 생기면서 한림 지역이 빠르게 성장했는데, 교통이 점차 편리해지면서 제주 서부 지역의 생활 중심지가 되어 의료시설이 들어섰다. 이 무렵부터 약초 지식의 전승 환경이 변화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더불어 주거 및 위생 환경의 변화, 소득 증대, 교육 수준의 향상 등은 고통에 대한 대응 방식을 크게 바꿔놓았다. 어린이 등을 제외하면 대개의 인간이 고통에 대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참는 것이며, 다음 단계가 고통을 드러내고 주변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만약 자원이 부족하거나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다

면 최대한 참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우리의 질병에 대한 관념과 대응 방법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고통을 표현하는 언어는 다양해졌을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문화가 함께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 VII.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홉고랑풀은 쑥과 익모초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념적 범주로 판단된다. 아홉고랑풀 중 녹이초는 실체를 알 수 없고, 삼지구엽초는 제주에서 사라지 않는다. 또 단오 무렵 채취해 오던 식물은 쑥·익모초·섬오갈피·띠 정도이며, 그나마 섬오갈피는 자연 상태에서 개체 수가 드물어 쉽게 구할 수 없었고 띠는 채취 시기가 단오 전후로 폭이 넓다. 또 아홉고랑풀 풍속의 전승은 단절된 지 적어도 50년 이상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아홉이라는 숫자는 약초로서의 효능을 강조하는 수의 상징성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아홉고랑풀은 실체라기 보다는 관념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적 범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식물에 대한 사회문화적 연구에서 학제적 접근은 필수적이다. 국제적 표준이 되고 있는 식물 분류법과 민속분류법의 차이가 크므로, 기존의 연구 및 조사보고서 등에서 제보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들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학명 표기는 아직은 미개척 분야인 이 방면 연구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문화 전공자들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식물분류학자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야 한다. 식물은 문화 안에서 인식(분류)·채취·가공·유통·활용이 결정된다. 총체적인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조상의 가르침과 자신의 독특한 경험들이 결합하여 맥락적으로 활용되는 일종의 관념이지만, 결코 사회적 구성이라는 측면만 강조할 수는 없다.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되는 실체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자들과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기존 민간의료 관련 조사 보고들에서 성(性)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현장의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증상과 특정 약초와의 대응 관계만 나열하던 조사 연구 관행은 이제 수정되어야 한다. 가령 쑥·익모초·띠는 공통적으로 지혈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데, 현장에서 이들 약초에 대해 남성 보다 여성들이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여성들이 약초 지식의 전승과 활용에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민간의료 관련 조사 보고들에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증상과 특정 약초와의 대응 관계만 단순 나열하던 관행은 자칫 그릇된 정보를 양산한다. 민속학개론류의 책들에 나오는 음력 삼월 삼짇날 화전을 만들어 먹었다는 식의 기술이 그 시기에 꽃이 피지 않는 지역들을 간과해 온 국민국가 시대의 전통문화 창조 과정이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넷째, 주민들에게 각종 출혈 및 근골의 통증, 열, 복통을 동반하는 증상들은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딱히 주민들에 의해 질병으로 인식, 분류되는 것들이 아니다. 이념적으로 ‘정상적인 몸’을 상정하여 ‘치료(완쾌)’ 내지 ‘교정’을 위해 진력하는 근대 의학의 전문가들과 달리, 주민들은 고통이 완화되어 일상생활(특히 노동)만 할 수 있다면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다. 따라서 공식적인 진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호소하고 조언을 구하는 태도를 취해 온다. 이는 민속질현의 원인을 개인의 몸 안에서 찾기 보다는 사회관계 속에서 찾는 데서 알 수 있으며, 자연에 대한 지식의 일환으로 약초 지식을 전수받아 활용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은 치료 과정에 있기 마련인 일상과의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정도에서 만족하고 몸의 고통을 감당해 내는 문화와 관련된다.

현장 주민들에게 질병과 약초에 관한 지식과 경험담을 주고 받는 행위는 생활에 편의를 줌과 동시에 조상의 가르침과 자연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 보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인하며 경우에 따라 인생을 회고하는 기회도 제공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의서에 실린 각 약초의 효능도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한편 건강과 관련된 지식의

진승이나 문화적 실천이 남녀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단서를 포착했던 것은 뜻하지 않은 수확이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어려서부터 고통을 참고 드러내지 않도록 길러지며,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사회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 과로 등에 상대적으로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노출된다.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남겨진 각종 음식을 치우는 과정에서 영양도 골고루 섭취하며, 몸을 보살피는 지식과 경험도 많이 가진다는 사실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오래 사는 현상에 대해 의학적 접근 보다는 문화적 분석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방면 연구가 진행되면서 많은 새로운 진실들이 밝혀지고 풍성한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도 세시풍속』, 2001.
- 高山郷土誌 發刊委員會, 『濟州 高山郷土誌』, 北濟州郡 翰京面 高山里, 2000.
- 김두진, 『한국 속문화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두진, 『식물 연구를 통한 한국문화의 새로운 접근』, 『생활문화연구』 제8호, 국립민속박물관, 2003.
- 김한주, 『제주도 약용자원식물에 관한 조사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현·송미장, 『민족전통식물학』, 월드사이언스, 2008.
- 남제주군·최남단청정환경21실천협의회, 『남제주군의 희귀식물』 남제주군, 2003.
- 박경용, 『채약(採藥) 민속과 민간의료 - 대구·경북지역 채약인(採藥人)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통권76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국립민속박물관, 『약쭈베기』,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편, 2005.
- 安徳均, 『原色 韓國本草圖鑑』, 서울:敎學社, 20024.
-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1』, 넥서스, 2004.
- 李昌福, 『大韓植物圖鑑』, 郷文社, 19996.
- 전영우, 『숲과 한국문화』, 수문사, 1999.
-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의 동·식물 목록』, 제주, 2006.



- 조경만 · 김하송, 「조약도의 약용식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경험」, 『島嶼文化』 제12집, 1994, 187-202면.
- 秦聖麒, 『南國의 歲時風俗(濟州道民俗誌)』, 濟州民俗文化叢書 9, 濟州民俗文化研究所, 1969.
- 한경면역사문화지편찬위원회, 『한경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7.
- 한라생태환경연구부, 『제주의 약용 · 식용식물 모음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2008.
- Ethan Watters, *Carzy like US : The Globalization of the American Psyche*, Sterling Lord Literistic, Inc. : New York, 2010.(에단 와터스 지음, 김한영 옮김, 『미국처럼 미쳐가는 세계 : 그들은 맥도날드만이 아니라 우울증도 팔았다』, 서울 : 아카이브, 2011.)
- Foster, George M., Anderson Babara G., *Medical Anthropology*, John Wiley & sons : New York, 1978.(조지 M. 포스터 · 바바라 G. 앤더슨 지음, 구분인 옮김, 『의료인류학』, 서울 : 한울, 1994.)
- Bernstein, Jay H., First Recipients of Anthropological Doctorates in the United States, 1891-1930, *American Anthropologist*, Vol.104, No.2,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2002, pp.551-564.
- Choudhary, K., Singh, M., Pillai, U., Ethnobotanical Survey of Rajasthan - An Update, *American-Eurasian Journal of Botany*, 1(2), IDOSI Publications, 2008, pp.38-45.
- Hsu, Elisabeth, Inthroduction. Plants in Medical Practice and Common Sense : On the Interface of Ethnobotany and Medical Anthropology, in E. Hsu and S. Harris (eds.), *Plants, Health and Healing : On the Interface of Ethnobotany and Medical Anthropology*, New York & Oxford : Berghahn Books, 2010, pp.1-48.
- Harshberger, J.W., The purpose of ethnobotany, *Botanical Gazette*, XXI, Hanover, Ind. : J.M. Coulter, 1896, pp.146-158.
- Pelto, Perth J., Pelto Gretel H., Studying Knowledge, Culture, and Behavior in Applied Medical Anthropology,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Vol.11, No.2,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1997, pp.147-163.
- Wayland, Coral, Gendering Local Knowledge : Medicinal Plant Use and Primary Health Care in the Amazon,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Vol.15, No.2,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2001. pp.171-188.

**Abstract**

The birth of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the case of  
‘*Ahop-golangpul*’ in *Jeju*

Kim, Doo-jin

The custom of gathering ‘*Ahop-golangpul* (categorized nine medicinal herbs)’ on the season of *Tano(Dano)* remains in *Jeju* island. The nine herbs are said *suk*(mugwort), *ikmocho*(motherwort), *wuryungsun*, *ogalpi*, *chunmudong*, *tipuri*, *geumeunhwa*, *samjiguyepcho* and *nokyicho*, but some of them don't grow there or aren't known clearly what species of plants are. Besides, it is said that each of nine herbs should be gathered at different seasons in the field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lthough *Jeju* people say the custom have been handed down from the past.

If so, what are they, why were the islanders classified as one category? This article is the answers about it. I used the method of ethnobotanical identification combined with participant observaton and refered to botanical textbooks about the methods of gathering, prepararing and using of those herbs.

Key words : medicinal herb, plants, ethnomedicine, ethnobotany, ethnopharmacology, traditional knowledge, folk illness, folk remedies, Jeju island, medical anthropology

소 속 :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  
전자우편 : kimdoojin@hanyang.ac.kr

투고일 11. 4. 30 / 심사완료일 11. 6. 11 / 게재결정일 11. 6. 14